



몽골 싹사를 조립 현장

1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요

중국, 몽골 등에서 발원한 황사 및 미세먼지는 국내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건강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 재해 증가 등 세계적 난제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산림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2050 탄소 중립 선언(VIP, 2020. 10. 28)' 실현과 그린 ODA* 추진 등 산림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사막화 확산, 황사 등 이슈가 부각되고 산림복원과 사막화 방지 등 개도국의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그린 ODA 확대, 정상 외교 후속조치에 따른 사업으로 산림분야 ODA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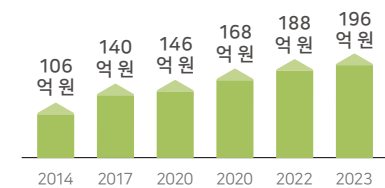
국제 산림분야 협력이 확대되면서 ODA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상지역 다변화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이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년부터 '23년까지 최근 10년간 예산액은 85%, 사업 수는 160%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동북아와 동남아 중심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ODA 사업 취지인 무상원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타 부문과 연계한 사업 발굴, 민·관 파트너십 확대 등 정부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맞춤형·융합형 사업추진 및 국제사회에서 산림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산림청은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맞춤형 ODA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개도상국에서 산림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주민소득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로 양자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가 공통과제로 안고 있는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원조국의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

공적 개발원조 예산 추이



공적 개발원조 사업 수





몽골 산불 피해지

2

몽골 산불 피해지 복원 및 예방

가. 사업 개요

- 📄 사업명 : 몽골 산불 피해지 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 📁 사업 목적 : 몽골 북부지역 산불 피해지 복원과 산불예방 숲 조성, 채종림·양묘장 등 산림복원기반 시설 확충, 혼농임업·생태관광 등 주민 소득 증대 프로그램 개발
- 📅 사업 기간 : 5년('22~'26)
- 📍 대상 지역 : 몽골 북부지역[셀렝게(Selenge), 흠스굴(Khuvsgul)], 중부지역[투브(Tuv)], 남부지역[우브르항가이(Uvurkhantai)]
- 📖 주요 내용
 - 북부지역 산림복원 및 산불예방 시범사업(600ha)
 - 혼농임업 및 생태관광 등 주민소득 증대 프로그램
 - 산림복원 기반시설 확충(3개소) 및 역량강화
 -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모델 개발

나. 추진 경과

🌱	'19.3	국무총리 순방 후속이행 조치
🌲	'21.9	한-몽 화상 정상회담 시 산림협력 강조
📄	'21.9	한-몽 그린벨트 3단계 MOU 체결
🔄	'21.12	한국 측 한-몽 그린벨트사업단 사업관리자 파견 및 사업진행
🤝	'23.5	면세제도 적용을 위한 한국 산림청-몽골 재무부·환경관광부 MOU

다. 기대 성과

- 산림복원 및 산불 예방숲 조성으로 산불 빈도 및 잠재적 피해 감소
- 지역사회기반 혼농사업 및 생태관광 추진으로 주민 생계 개선
- 몽골 정부와 지역주민의 조림 인식 제고

라. 향후 추진계획

- 산림복원 및 산불예방숲조성, 혼농임업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막 화방지 활동 지원('22~'26)



<대표성과>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을 통해
몽골 정부 식목일 제정(2010)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법령 제정(2012)

몽골 대통령 10억 그루
나무심기 선언
(2019, 유엔총회)

한-몽 그린벨트 사업

- 양묘장 온실 재배
- 산불 피해지 복원 소나무 식재
- 산불 훼손지 복원 울타리 설치

3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 사업 목적 : 기후위기 대응 및 사막화·황사·미세먼지 방지 조림 사업
- 사업 기간 : 5년('22~'26)
- 대상 지역 : 몽골 투브(Tuv) 아이막 바양항가이 сом(Bayankhangai Soum)
- 주요 내용 : 사막화방지 조림(75ha), 양묘장 조성(1개소, 2ha), 기반시설 (울타리, 관정 등) 설치 등

나. 추진 경과

	'20	동북아 권역 내 황사 저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 부문의 사막화 방지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국회)
	'21.9	몽골 대통령 10억 그루 나무심기 선언(유엔총회)
	'21.10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우선사업대상지 기초조사 용역 추진
	'22	1년차 사업수행자 선정하여 사막화방지 조림(3ha) 및 기반시설 구축

다. 기대 성과

- 동북아 권역 내 황사 저감 및 몽골 지역주민의 조림 인식 제고
- 사막화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공감대 확산 등 민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참여 유도

라. 향후 추진계획

-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막화방지 조림 및 기반시설 구축 등



4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가. 사업 개요

- 📅 사업명 :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 📋 사업 목적 :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UNCCD 전략계획 이행
- 📅 사업 기간 : 17년('12~'28)
- 🌐 대상 지역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다국가 사업
- 📄 주요 내용 : 창원이니셔티브는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의 개념을 중심으로 토지황폐화 중립 목표설정 이행 프로그램, 건조지녹화사업, 황사 방지정책 개발, 가뭄 대응 등 한국이 주도 하는 이니셔티브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지원

나. 추진 경과

🌐	'11.10	UNCCD 10차 총회(한국은 전략계획을 지원하는 '창원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당사국의 지지를 받음)
📄	'18.3	산림청-UNCCD 간 MOU 체결
🌱	'23.2	지속 협력을 위한 MOU 갱신

다. 주요 성과

- 🔄 토지황폐화중립(LDN¹) 개념 및 실행방안 마련으로 SDG15.3² 채택에 핵심적으로 기여
- 🔄 국가행동계획(NAP) 조정 지원 및 건조지녹화파트너십(GDP) 사업 추진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 황사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및 UN총회 의제화 등 황사정책 추진

¹ 토지황폐화중립의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의미(산림복원 포괄)

² 토지황폐화중립은 유엔총회가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한 2030 개발목표”에 반영(세부목표 '15.3)

라. 향후 추진계획

- ☞ 창원이니셔티브의 이행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GDP 사업 내실화
 -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 및 우수 제안서 채택을 통한 추가 지원
 - GDP 운영위원회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사업대상국의 전략적 선별 추진



- GDP 사업 : 양묘장 조성
- GDP 사업 : 혼·농임업
- LDN-TSP
(Land Degradation Neutrality :
Target Setting Programme)
토지황폐화 중립 목표 수립 프로그램

5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가. 사업 개요

- 📄 사업명 :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및 피스타치오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 📄 사업 목적 : 타지키스탄 산림협력을 통한 사막화방지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 📅 사업 기간 : 5년('19~'23)
- 📍 대상 지역 : 타지키스탄 Hatlon 주, Sino 주, Sharhrinav 주, Gissari 주
- 📋 주요 내용 : 싹사울 양묘장 조성 및 시범조림, 피스타치오 시범림 조성 및 육종센터 운영, 조림 및 육종 교육

나. 추진 경과

📄	'19.7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 MOU 체결
📋	'18.4	한-타지키스탄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추진
✍️	'19.2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ROD 체결
👥	'20.7	한국측 타지키스탄 사업관리자 파견 및 사업진행
🤝	'21.11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22.5.2	한-중앙아 산림 고위급 회의

다. 주요 성과

- ☞ 타지키스탄 산림연구원 싹사울 용기묘 조림 최초 실시
- ☞ 현지 적합한 수종 생산·조림을 통해 사막화 방지 기여
- ☞ 종자선별 등 교육 실시하여 산림소득 창출로 지역주민 가계경제 개선

라. 향후 추진계획

타지키스탄 내 싹사울, 피스타치오 이해관계자 역량강화교육



- 타지키스탄 싹사울 양묘장, 운실, 기계창고 전경
- ■ 타지키스탄 싹사울 용기묘
- ■ ■ 타지키스탄 싹사울 조림지 전경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싹사울 조림사업 전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싹사울 조림사업 양묘장

가. 사업 개요

- 📄 사업명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 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 📁 사업 목적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를 통한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 혼농임업을 통한 주민 소득 개선에 기여
- 📅 사업 기간 : 5년('23~'27)
- 📍 대상 지역 : 타지키스탄 Khatlon 주, Sughd 주, Dushanbe
- 🔍 주요 내용 : 사막화 방지 조림, 혼농임업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 주민 교육·훈련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한 산림부문 역량 강화

나. 추진 경과

📄	'19.7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 MOU 체결
🌱	'19~'23	1단계 산림협력사업 추진
🌐	'21.11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22.5.2	한-중앙아 산림 고위급 회의('22.5.2)에서 산림협력 강조
🌱	'22.1	한-타지키스탄 2단계 산림협력사업 요청
📝	'22.6	시행계획 확정

다. 주요 성과

- 📌 한-타지키스탄 1단계 산림협력사업 완료 및 2단계 사업 추진('23.12~)

라. 향후 추진계획

- 📌 한-타지키스탄 2단계 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여건 조성('23~'27)
- 📌 혼농임업 사업, 도시정원 조성 준비 및 양묘장 2개소 조성 추진



■ 혼농임업 조림 준비

■■ 싹사울 조림지 식재

■■■ 싹사울 조림지 관수